

- 2007년도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-

歸 國 報 告 書

- 여행기간 : 2007.5.13(일) ~ 5.19(토) ▶ 6박7일
- 방 문 국 : 호주(시드니, 멜버른 등)
- 대 상 : 18명(의원 15명, 수행직원 3명)



沙 下 區 議 會

SAHA DISTRICT COUNCIL

목 차

I) 연수 개요

- ▣ 연수목적
- ▣ 연수기간
- ▣ 연수지역
- ▣ 연수참가자 및 분야별 보고서 작성자 명단
- ▣ 주요일정

II) 호주의 일반 현황 및 행정구역

- ▣ 호주의 일반 현황
- ▣ 호주의 행정 구역

III) 방문시설 현황 및 관련 참고사항

- ▣ 방문시설 현황
- ▣ 관련 참고사항

IV) 방문 지역별 현황 및 기타 방문지

- ▣ 방문지역별 현황
- ▣ 기타 방문지

V) 연수소감

VI) 관련사진

공무국의여행귀국보고서

I) 연수 개요

1. 연수 목적

- 호주의 재개발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
- 해수욕장 기반시설 등 관광시설의 선진적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코자 함.

2. 연수 기간

- 2007년 5월 13일(일) ~ 5월 19(토) ▷ 6박 7일

3. 연수 지역

- 연수국가 및 주요도시 : 호주 (시드니, 멜버른)
- 주요 방문지역 : 달링하버 재개발지역, 맨리 해수욕장, 본다이 해수욕장 등 관광시설

4. 연수참가자 및 분야별 보고서 작성자 명단

- 연수인원 : 18명(의원 15명, 의회사무국 공무원 3명)
- 연수참가자 및 분야별 보고서 작성자 명단 ▷ 별첨

5. 주요 일정

일 자	장 소	교통편	시 간	주 요 행 사 일 정	비고
제1일 5.13 (일)	부 산 도 교	JL958 QF136	14:00 16:00 20:00	부산 출발 / 도쿄 향발 도쿄 도착 도쿄 출발	
제2일 5.14 (월)	멜버른	전용버스	09:45	멜버른 도착 소보린힐 금광촌 시찰	
제3일 5.15 (화)	멜버른	전용버스	전 일	단데농 국립공원 시찰 멜버른 시내 도시기반 시설 시찰	
제4일 5.16 (수)	멜버른 시드니	QF418 전용버스	09:00 10:20	멜버른 출발 시드니 도착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관광자원 보전실태 시찰 엣지 시네마 영화감상 (자연보존 실태)	
제5일 5.17 (목)	시드니	전용버스	전 일	달링하버 재개발 지역 견학 맨리, 본다이 해수욕장 기반시설 견학	
제6일 5.18 (금)	시드니	전용버스 QF021	전일 21:40	시드니 관광자원 보전실태 시찰 시드니 도시기반 시설 시찰 (오페라하우스, 하버브릿지, 맥쿼리포인트) 시드니 출발	
제7일 5.19 (토)	도 교 부 산	JL957	06:35 11:00 13:05	도쿄 도착 도쿄 출발 부산 도착	

II) 호주의 일반 현황 및 행정구역

1. 호주의 일반 현황

▣ 국 명

- 정식 국명은 Commonwealth of Australia
- 오스트레일리아는 1801년 영국 해군장교 매튜 플린더스가 작은 배로 대륙을 일주한 다음 귀국 보고를 하면서 육지 이름을 Australia라 부르자고 제안한데서 비롯
- Terra Australis 즉 남쪽의 나라(land of south)라는 뜻의 단축형

▣ 정 치

-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
 - 6개주중 퀸즈랜드주를 제외한 5개 주는 양원제 의회
 - 퀸즈랜드주는 1922년 의회 투표를 통해 단원제를 채택했으며 북부지구와 수도지구도 단원제
-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(Constitutional Monarchy)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(Governor-General)이, 6개 주정부는 총독(Governor)이 대표
 - ※ 현재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1996년부터 4기 연속 집권
- 독립적인 영국 식민지 6개주가 합의하여 연방국가를 창설한 관계로 정부 권한이 연방정부,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에 분산
 - 연방 : 국방, 외교, 무역, 금융, 체신, 통신, TV, 라디오, 고용, 소득 및 법인세, 이민 및 세관, 여권, 연금, 항공 등
 - 주 : 학교, 병원, 도로, 철도, 자동차등록, 산림, 경찰, 소방, 야생동물 보호 등
 - 지방 : 도시계획, 도로교통, 도서관, 쓰레기 수거, 하수도, 운동시설, 지역 관광 등

-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하며 잔여 권한(residual rights)은 주정부에 귀속됨. 다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연방과 주법이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

■ 사 회

- 전체인구의 98%이상이 백인이며 한국 교민은 현재 약 6만명으로 추산
- 사용언어는 영어로 영국 영어에 가까움.
-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존과 국민건강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

■ 지 리

- 호주의 면적은 약 769만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
- 총면적의 90%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음.
-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

■ 기 후

-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
- 봄은 9~11월, 여름은 12~2월, 가을은 3~5월, 겨울은 6~8월이며, 여름은 우기로 평균기온 27℃, 겨울은 건기로 평균기온 13℃
- 전체 대륙이 남위 10.41° - 43.39°에 걸쳐 있어 여러개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열대 우림기후, 열대성기후, 아열대성기후, 온대성 기후로 나뉘어 짐.
- 대륙의 중앙부는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큰 것이 기후의 특징, 연평균 강우량 465mm

▣ 역 사

- 1770년 영국의 쿡선장이 보타니 베이에 정박하기 전까지 애버리지니 (Aborigine)라 불리는 호주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냈던 지구 남반구 (Down Under)대륙
- 10년 후인 1780년 영국에서 죄수들과 죄수 관리 관료들이 시드니 항 더 록스(The Rocks)에 정착하여 각종 건축 구조물 등을 세우면서 인구가 증가, 1793년에는 자유이민이 시작
- 1851년 금이 발견되면서 ‘골드러쉬’가 일어나 중국에서 채광 노무자들 수만명이 이주, 약 10년 후 인구가 1백만명에 육박
- 1860년 백호주의 조합이 생겨나 백인만의 이민정책이 이루어짐.
- 1901년 호주 연방제가 탄생되고 자치제가 이루어졌으며 1926년 영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의 독립 성취

▣ 민족 및 종교

- 민족 : 영국계(77%),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(21%), 원주민(2.0%)
- 종교 : 기독교가 대부분
(성공회 24%, 천주교 26%, 감리교 2.6%, 연합회 7.6%, 장로교 3.6%, 힌잡정교 2.9%등)

2. 호주의 행정 구역

- 6개주와 1개 準州(노던 테리토리) 그리고 수도특별구(캔버라 지역, ACT)로 구성
 - 6개주 : 뉴 사우스 웨일즈, 빅토리아, 퀸즐랜드,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,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, 태즈매니아
- 각 주는 식민지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,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입법·행정·사법부를 보유

Ⅲ 방문 시설 현황 및 관련 참고사항

1. 주요 방문시설 현황

▣ 시드니 달링하버 재개발 지역

① 명칭의 유래

- 1788년 영국의 이주자들이 도착하면서 역사가 시작
- 방파제 등 인공시설이 필요없는 천혜의 항구
- 초기 이주민들은 “롱 코버(비 정상적으로 긴 灣)라 부름.
- 1826년 뉴사우스웨일스 9대 총독인 랄프 달링경의 이름을 빌려 달링하버라 정식 명명

② 재개발 개요

- 달링하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레저 및 위락의 중심지
- 1984년 뉴사우스웨일스주 이백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
- 19세기말 대단위 공업지대로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자체 시설 노후화와 운송수단의 변화 등으로 점차 황폐화
- 1984년 달링하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, 1차 개발사업으로 총 부지 약 18만평, 총사업비 25억 달러 투입 개발
-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매년 약 2천5백만명(2006년)의 관광객 유치
- 과거 단순 항만기능 및 도시 배후 산업기능만을 담당하던 항구 지역이 수변개발과 연계한 도시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위락지역으로 명성을 얻음.

③ 개발 역사

- 이주민 정착단계인 1800년 조개껍질의 석회를 이용한 벽돌공장이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뒤이어 첫번째 선착장, 증기 발전을 이용한 공장 등이 설치됨으로써 시드니 개발의 시작을 알림.
- 1826년 주총독의 이름을 따 달링하버로 명명하면서 실제 항구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1850년 어류 냉동공장이 건설, 냉동육류를 최초 수출하면서 시드니 대부분의 해상 물동량을 소화하는 항구로 발전
- 1950년대 시드니에 전철 및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시드니 전역을 담당하는 물동량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영향력 감소
- 1984년 산업항으로서의 달링하버 기능을 마감하고 달링하버 관리청법을 제정하여 재개발 본격 실시, 시드니컨벤션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이 건립되어 달링하버는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시드니 2대 관광명소로 부상
-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달링하버 방문객은 약 1억5천만명

④ 달링하버 재개발 사례의 시사점

〈이상적 수변개발〉

- 재개발과정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산책 기능을 갖춘 인도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한 후 쇼핑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시 함.
- 수변 가장 가까운 곳에 일반인을 위한 공간을 배치하고 수변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에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특정인이 조망권을 독차지하는 사례를 방지
- 수변 시설은 시민과 관광객이 여가활동을 즐기고 편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개발이익의 극대화 추구

〈강력한 사업추진〉

- 강력한 개발 의지 및 법 제정을 통한 정부주도의 재개발 추진
- 수익성을 노리는 단기적인 상업적 개발을 지양하고 관광 위락단지라는 장기적인 재개발을 추진

〈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유치〉

- 항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국립해양 박물관 등 잘 디자인된 각종 위락 시설을 설치하여 상업적 성공 도모
- 시드니 전체 방문객의 약 20%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서 이미지 제고

〈각종 문화축제〉

- 신년 불꽃 축제 등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각종 문화축제를 수시로 기획 공연하여 달링하버가 축제의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노력

⑤ 달링하버지역 재개발 사업의 성공 이유

- 상업시설과 시민 친수공간의 조화
- 항만운영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됐던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변경하여 재개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제고
- 달링하버 최인접지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안 산책로를 설치하고 다음으로 관광위락시설, 가장 외곽지역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추진
-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려는 사업적 목적을 배제하고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광단지 조성

▣ 맨리 해수욕장

- 1788년 영국인 아서 필립에 의하여 명명
- 시드니 최초의 해변 휴양지로 1850년대 중반에 개발
- 동쪽으로 해변과 야산이 조화를 이루는 산책로가 이어지며 안쪽으로 셸리 비치 등 조그만 해변이 있음.
- 해수욕장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모여 있고 다양한 문화 공연이 개최되고 있으며 서핑 등 해양스포츠로 유명

▣ 본다이 해수욕장

- “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”를 뜻하는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지명
- 시드니의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1km 남짓한 거대한 백사장과 부드러운 모래로 유명
-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, 겨울철에도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의 호쾌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
- 해수욕장 대부분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
- 민간 자율 인명구조원이 구성되어 있고 해변에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명 안전사고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짐.
- 인명구조 타워가 설치되어 고가의 각종 안전장비 (전기충격기, 환자운반 장비, 산소마스크, 제트스키 등)가 갖추어져 있음.
- 민간용역업체에서 해수욕장을 수시 관리하며 피서객 이용비율은 내국인이 30%, 외국인이 70%를 차지

2. 관련 참고사항

▣ 호주의 해양관광산업

① 해양산업 개요

- 호주는 자원산업, 관광, 교육이 주 수입국가
- 호주 해양산업은 약 26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호주경제의 약 4%를 차지
- 고용인원은 약 26만여명으로 타분야에 비해 성장률이 높음.
- 해양산업중 두드러진 분야는 관광분야
- 관광분야는 해양산업의 약 50%에 이르는 부가가치 창출과 76%의 고용 창출 효과

② 해양관광산업

- 호주경제에서 해양관광사업 차지하는 비중은 약2%정도
- 고용창출면에서는 3%차지
- 시드니 등 해양레저에 적합한 뉴사우스웨일스는 호주해양관광산업의 40%차지
- 숙박, 운수 등 관광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직접고용효과가 높으며 호주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임.
- 호주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은 강력한 해양산업 개발의지를 가진 중앙 정부와 새로운 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 법률, 제도개선, 행정지원 등 내부적 투자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

Ⅳ 방문도시별 현황 및 기타 방문지

1. 방문도시별 현황

■ 시드니

-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호주 개척의 출발점이 된 도시
- 인구 약 400만명의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주도로 전국 인구의 약 1/4이 몰려 있는 호주 최대의 도시
-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항과 코발트 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 브릿지가 유명함.
- 호주 최대의 상공업도시이며 문화와 교육의 중심
- 인구에 비해 땅이 넓어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지 이외에 하이드파크 · 센테니얼 파크 등 도심지 근처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음.
-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국제적인 도시로의 명성을 얻고 있으며 전세계 도시평가에서도 최상위권 유지

■ 멜버른

-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빅토리아주의 주도
- 시드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시드니가 복잡하고 흥미로운 오락거리가 많은 도시라면 멜버른은 이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고 세련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
- 1835년 이주가 시작된 이래 약 320만명의 인구가 형성되었으며 호주에서 유럽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

-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에 의해 이 도시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건축과 음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음.
- 이탈리아 및 그리스 출신의 이주자들로 주로 구성된 다민족 도시로 시내에는 각국의 특색있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각종 축제에서는 각양각색의 민족의상을 볼 수 있음.
- 도심내 눈부신 색상의 식물로 가꾸어진 많은 공원이 있어 '정원의 도시'로 불리울 만큼 높은 녹지율을 자랑

2. 기타 방문지

▣ 소버린 금광촌

- 멜버른에 위치한 19세기 골드러시의 현장
- 금광이 있던 소버린힐에 우리의 민속촌처럼 금광촌을 재현
- 19세기 거리를 활보했던 마차와 당시 복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과거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
- 금광에 들어가 당시 금 채굴 과정을 살펴보는 프로그램, 개울에 앉아 직접 사금을 채취하는 프로그램 등 체험행사위주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

▣ 단데농 국립공원

- 멜버른에 위치한 야생새 먹이주기 등이 유명한 원시림 공원
- 100년간 운행되고 있다는 빨간색 증기 기관차 '퍼핑 빌리'가 유명하며 기차에는 창문이 없어 손쉽게 창가에 걸터앉아 살아 숨쉬는 산림을 그대로 느낄수 있음.

■ 피츠로이 공원

- 1857년 공원 설계자 싱클레어가 영국 국기 유니온 잭을 흉내내어 대각선과 십자를 상징하는 가로수 길로 설계
- 멜버른시 1백주년을 기념하여 1934년 영국에서 매입하여 현재 장소에 복원한 캡틴 쿡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오두막집이 유명
- 멜버른 시민이 1만장 이상의 타일을 깔아 만든 멜버른의 예술로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음.

■ 미세스 맥과리 포인트 (Mrs. Macquarie Point)

- 시드니를 대표하는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전경이 가장 잘 보이는 관광 명소
- 호주 제2대 총독 맥과리의 부인이 바다와 가까운 이곳에 나와 영국 쪽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래곤 했다고 해서 그녀의 이름을 빌려 명명

■ 블루 마운틴(Blue Mountain)

- 일명 호주의 '그랜드 캐년' 이라 불리는 호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
- 기암 협곡으로 둘러싸인 국립 공원으로 최고 해발 1천 미터의 구릉지대
- '블루 마운틴'이라는 명칭은 산을 뒤덮고 있는 유칼립투스 나뭇잎에서 나오는 유액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증발하여 푸른 안개가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
- 약 5억년 전에 형성된 지역으로 호주 원주민인 애버리진이 1천4백여년 동안 살았던 흔적이 바위 곳곳에 록 아트로 남아있음.

▣ 세 자매 봉우리(Three Sisters)

- 블루 마운틴을 대표하는 최대 절경
- 세 개의 둥근 기암이 우뚝 솟아 있는 '세 자매 봉우리'는 호주 원주민의 비극적인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

▣ 에코 포인트(Echo Point)

- 세 자매 봉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
- 세 자매 봉우리 반대편 방향은 호주의 '리틀 그랜드 캐년'이라고 불리는 사암 협곡들이 펼쳐져 있음.
- 폭포가 흘러내리는 세 자매 봉우리 하단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운행하는 관광열차가 있음.

▣ 하이드 파크

- 과거 경마장이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가 매쿼리 총독에 의해 시민의 휴식처로 변화
- 공원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에 파크 거리가 있어 공원내를 이분하는 것 같은 구조를 형성
- 터널처럼 둥글게 하늘을 가린 나무 사이에는 한낮에도 햇볕이 안 들어올 만큼 경관을 자랑
- 공원의 중앙에는 영국의 조지 5세와 6세를 기념한 상드링햄 공원이 있고 북쪽에는 아치볼드 분수, 남쪽에는 앤잭 전쟁 기념관과 쿡선장의 동상이 세워져 있음.

■ 시드니 수족관

- 거센 파도를 연상케 하는 호주 최대 수족관
- 호주 근해에 서식하는 650여 종류 1만 1000여 마리의 해양 동물로 구성
-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는 수심 10m 길이 145m의 수중 터널이 유명

■ 오페라하우스

- 시드니를 대표하는 랜드마크
-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(Jrn Utzon)이 설계한 것으로 1973년 완공
- 역동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건축물로 세계 건축인들의 방문 명소
-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닻 모양을 되살린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음.
- 하버브리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서 극장과 녹음실, 음악당, 전시장을 갖추고 있음.
-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호주 국립오페라단·무용단 여러 연극단의 본거지이며, 도서관시설도 갖추고 있음.

V 연수소감



이 현 택 의원 (의장)

- 21세기 사하구의 미래상을 재정립코자 추진하는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 계획의 중요과제인 재개발 및 해양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전문과 지식을 넓히고자 2007년도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지를 호주로 결정하였음.
- 예산 지원액보다 초과되는 경비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각출하는 등 해외 우수 사례의 습득을 위한 의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음.
- 호주의 주요산업은 자원 산업, 해양관광산업, 교육 등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물려받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
- 우리가 방문했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 1, 2위를 서로 다투는 제반 도시여건이 우수한 도시
- 곳곳에 해수욕장이 있는 자연 여건으로 해양레저산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도심지 주변에도 보트 정박지가 있는 등 보트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듯함.
- 주5일 근무,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도 고급 해양 레저 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다대포 관광단지 개발시 크루즈 항뿐만 아니라 보트산업 인프라 구축 등 보트산업단지 개발에도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.



옥 영 복 의원 (운영 위원장)

■ 달링하버 재개발지역

- 공공시설 및 개인시설 등이 높은 수준의 시설공간을 만들어 낸.
- 공원, 산책로 등이 잘 구성되어 있고 시내외 소통하는 모노레일 등 도시 인프라 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음.
- 재개발 기본계획부터 건물, 공원 그리고 세부 디테일까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쏟아 디자인 경쟁력이 뛰어남.
- 달링하버의 공간구성, 시설의 배치, 보행자들의 움직임 등이 하버의 수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- 전체 구조는 고가도로에 의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하버 부분은 수역 중심으로 나머지 부분은 녹지공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자 특성을 살리면서 세심하게 디자인 된 보행동선에 의해 서로 연결
- 사하구의 재개발 사업 역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우선시 되는 사업자 위주의 재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인간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■ 맨리, 본다이 해수욕장

- 호주 해수욕장은 특별한 기반 시설 없이 천혜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유지
- 백사장을 따라 뻗어 있는 잔디와 나무의 녹지대가 인상적이며 해변 거리에는 관광객 위주의 각종 편의 시설이 몰려 있어 편리
- 호주 관광사업은 고급 이미지를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구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관광 인프라 조성



최 천 수 의원 (총무 위원장)

■ 호주 재개발 사업 및 해양관광산업의 시사점

-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이 성패의 관건임.
- 우리구의 경우 2020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시책추진이 미흡한 실정
- 인근 송도해수욕장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의 예산지원이 사업 추진의 필수 요건이므로 다대포 해수욕장의 독립적인 개발보다 감천항 및 인근 서구의 암남공원, 송도 해수욕장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및 시 지원의 극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.
- 단기 수익성을 배제하여 시민 위주의 개발이 필요하며
- 다대 지하철 조기 착공과 관광객 및 시민의 원활한 접근성을 위해 모노레일 등 기타 교통시설을 운영하여 탐방기능을 강화하고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상업시설 유치 등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 하겠음.
- 특히 삼미 매립지의 개발을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인 관광크루즈항 조성 및 수변 전망공원을 추진하고
- 고부가 가치 사업인 보트 (요트) 사업에 대한 제반 검토도 필요하다고 봄.



김 연 수 의원 (도시 위원장)

- 풍부한 자원, 깨끗한 환경, 방대한 국토 등을 가진 호주는 주민의 삶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유지
- 각종 지원금을 통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지위가 높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높음.
-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편견없이 현금수송 업무 등 정상인들의 업무를 맡기는 등 동등한 대우하고 있으며 1년에 1인당 2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등 생활보장에 사용토록하고 있음.
- 오후 5-6시가 되면 상가가 철수함으로 저녁 밤거리가 무척 어두웠는데 상점에 사람이 없어도 전기시설을 소등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전기요금을 보조한다고 함.
- 멜버른 도심지 도로 1차선에 트램이라는 시내전철이 운행되어 도심지 교통난을 완화시켜주고 있었으며 고속도로 등 도로 차선의 폭이 우리 도로에 비해 무척 좁았는데 차량운행시 방심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 함.
- 개인 집안의 나무라도 정부의 허가없이는 훼손이 불가하며 낡은 자동차를 국가에서 구입해 폐차하고 저급 휘발유 가격을 고급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책이 돋보임.
- 야외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호주에서 야외 캠핑생활중 먹었던 호주음식이 미국으로 건너가 요즘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아웃백 음식점들의 근원이 되어 세계적인 음식 문화가 되었다고 함.

VI) 관련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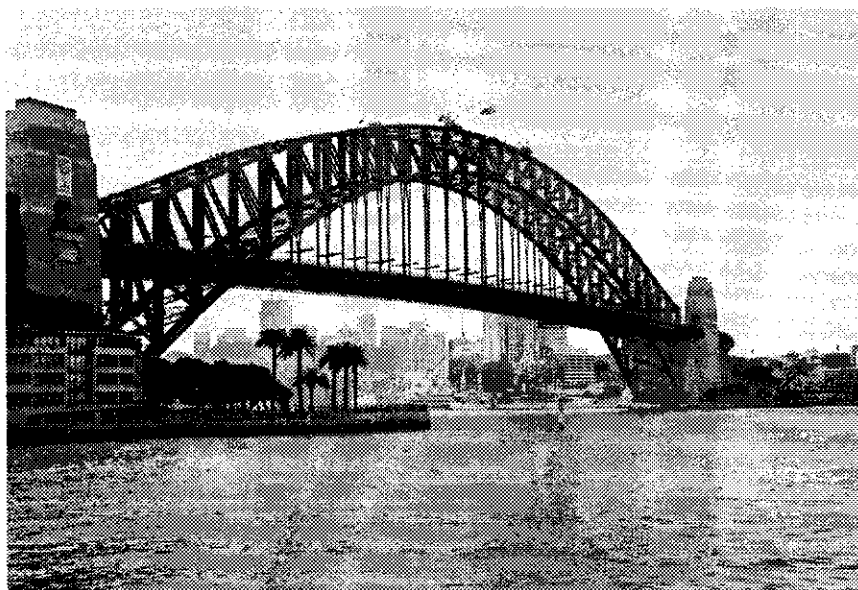
【멜버른 왕립식물원】



【블루 마운틴】



【오페라 하우스】



【하버 브릿지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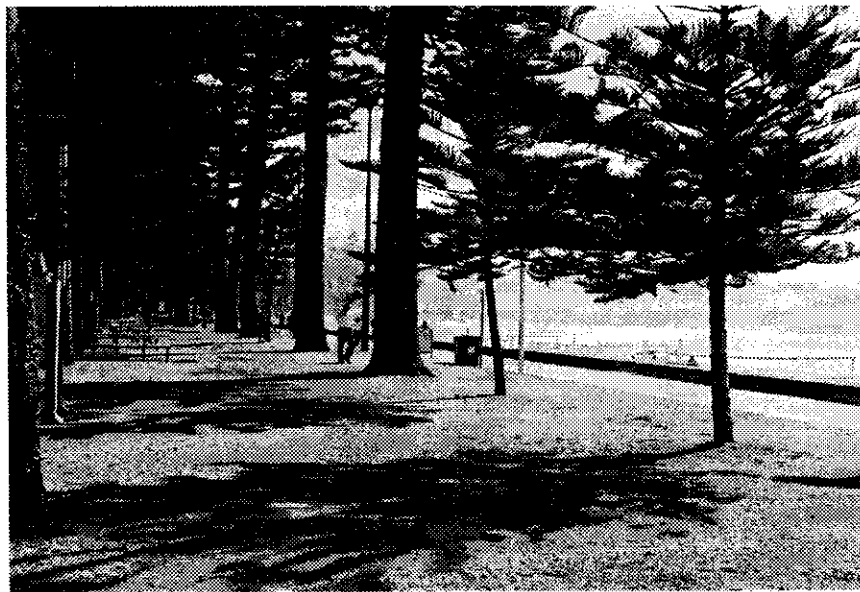
【미세스 맥쿼리 포인트】



【본다이 해수욕장 인명구조 클럽】



【달링하버 항 크루즈선상】



【해수욕장 주변 녹지대】

연수 참가자 및 분야별 보고서 작성자 명단

직 위	성 명	보고서 작성 분야	비 고
의 장	이 현 택		
의회운영위원장	옥 영 복	분야별 보고서 총괄	
총무위원장	최 천 수	재개발 사업 운영사례 등	
위 원	한 승 정	"	
	박 일 훈	"	
	박 해 순	"	
	김 성 오	"	
	임 일 심	"	
도시위원장	김 연 수	해수욕장 관광자원 운영사례 등	
위 원	안 채 호	"	
	노 승 중	"	
	지 근 수	"	
	김 흥 남	"	
	김 정 량	"	
	최 도 년	"	
의회 전문위원	김 중 열	보고서 편집 정리 총괄	
수행 직원	박 준 영	자료 수집 및 보고서 편집 정리	
수행 직원	김 민 산	"	

2007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호주 재개발 지역 및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시설의 선진 운영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를 마치고 위와 같이 귀국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07년 6월

사하구의회 의장 귀하